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2014.06.05 | 강세진_새사연 이사 | wisemaninspace@daum.net

경제불황,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소비형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부담이 되고 있는 소비항목은 무엇인지, 실질소득의 감소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출항목은 무엇인지 등을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짚어보았다.

소비의 대상: 재화의 유형과 특성(수요-가격 함수)

누구나 잘 알다시피 소비(consumption)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돈을 내고 사는 행위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그 <무엇>을 재화(good)라고 한다. 한편 어떤 재화를 사려고 하는 욕구를 수요(demand)라 하며, 수요의 수준은 해당 재화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다. 수요와 가격의 일반적인 관계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지니는 재화를 일반재(ordinary good)라고 한다.

실제로 입증된 사례는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때 오히려 수요가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재화를 기펜재(Giffen good)라고 한다.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 감자의 가격과 수요, 1990년대 중반 멕시코의 토르티야의 가격과 수요 등을 기펜재 현상으로 해석하려는 경우가 있다.

지갑에 만 원짜리 지폐 한 장밖에 없는 경우와 오만 원짜리로 두툼한 경우 둘 중에 어느 쪽이 씹씹이가 클 것인지 생각해보자. 당연히 수중에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요의 수준은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결정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이론이다. 앞서 언급한 <수요-가격>함수관계를 가격효과, <수요-소득>함수관계를 소득효과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소득효과는 <소득이 오르면 수요도 커진다>는 것이며, 이런 특성을 지니는 재화를 정상재(normal good)라고 한다.



그런데 특정 재화는 소득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재화를 열등재(inferior good)라고 하는데, 이른바 천냥마트에 깔려있는 저가상품, 저렴한 경차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열등재에 속하는 재화가 기펜재와 같은 현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열등재와 대척점에 있는 재화가 베블런재(Veblen good; 사치재)이다. 이런 재화의 특성은 <비싸? 명품이구나!>이다. 즉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가격¹⁾으로 오를수록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기이한 경우인데, 과시적 소비나 지위경쟁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된다. 앞서 언급한 기펜재의 경우 해당 재화의 선호와는 관계없이 가격이 오름에 따라 구매력이 저하되어 다른 대체재(substitute good)를 고를 수 없는(그래서 가격이 오른 재화를 더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베블런재의 경우는 가격이 오름에 따라 선호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대체재는 말 그대로 어떤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화를 말한다. 한마디로 <꿩 대신 닭>이다. <가>와 <나>가 대체재 관계에 있다면, <가>의 수요가 증가하면 <나>의 수요가 감소하고, <가>의 수요가 감소하면 <나>수요가 증가한다. 이를 수요-가격의 함수관계로써 <가>의 가격이 내리면 <나>의 수요가 감소하고, <가>의 가격이 오르면 <나>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풀 수 있다.

대체재를 언급하려면 동시에 보완재(complement good)도 살펴보아야 한다. 보완재란 말 그대로 어떤 재화를 보완하는 재화를 말한다. <실 가는 데 바늘 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가 <A>의 보완재라면 <A>의 수요가 증가하면 의 수요도 증가하고, <A>의 수요가 감소하면 의 수요도 감소한다. 이를 수요-가격의 함수관계로써 <A>의 가격이 내리면 의 수요가 증가하고, <A>의 가격이 오르면 의 수요가 감소한다고 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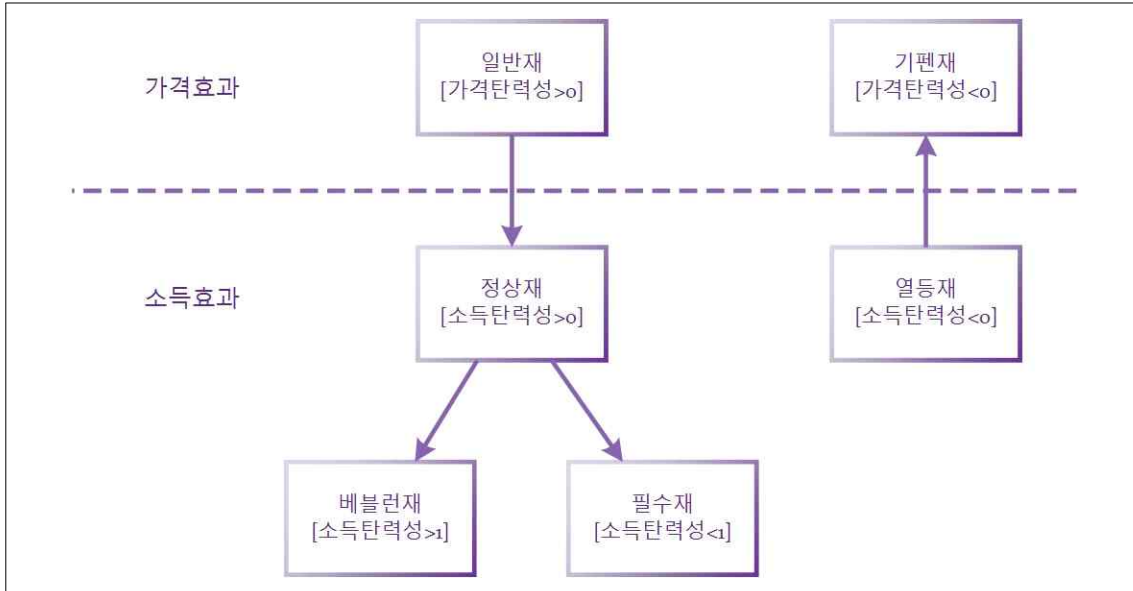
수요-소득 함수의 기울기를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소득탄력성이 0 이상인 경우가 정상재이며, 0보다 작은 경우가 열등재이다. 한편 정상재 중에서 소득탄력성이 1 이상인(소득 변화에 따른 차이가 큰) 경우가 베블런재라고 할 수 있으며,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소득 변화에 따른 차이가 작은) 경우를 필수재(necessary good)라고 한다. 빈부와 상관없이 보통 하루에 때우는 끼니의 양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즉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루에 소비하는 쌀의 양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이처럼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게(또는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필수재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1과 같다.

1) 그만한 가격을 매길 생산공정상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1. 재화의 유형과 특성



출처 : 새사연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통계자료

통계청에서 분기별·연도별로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는 소비지출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통계자료이다. 가계동향조사의 지출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①식료품·비주류음료, ②주류·담배, ③의류·신발, ④주거·수도·광열, ⑤가정용품·가사서비스, ⑥보건, ⑦교통, ⑧통신, ⑨오락·문화, ⑩교육, ⑪음식·숙박, ⑫기타 상품·서비스, ⑬비소비지출 등이다. 각 항목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료품·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빵및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및알, 유지류, 과일및과일가공품, 채소및채소가공품, 해조및해조가공품, 당류및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및차, 주스및기타음료

〈주류·담배〉

주류, 담배

〈의류·신발〉

직물및외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수도·광열〉

실제주거비, 주택유지및수선, 상하수도및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가구및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및장식서비스, 가정용섬유, 가전및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가사용품, 가정용공구및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보건>

의약품, 의료용소모품, 보건의료용품및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교통>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및수리, 운송기구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기록매체, 영상음향및정보기기수리, 오락문화내구재, 악기기구, 오락문화내구재유지및수리, 장난감및취미용품, 캠핑및운동관련용품, 화훼관련용품, 애완동물관련물품, 화훼및애완동물서비스, 운동및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

정규교육(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및보습교육(학생학원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음식·숙박>

식사비, 숙박비

<기타 상품·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이미용기기, 위생및이미용용품, 시계및장신구, 기타개인용품, 복지시설,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비소비지출>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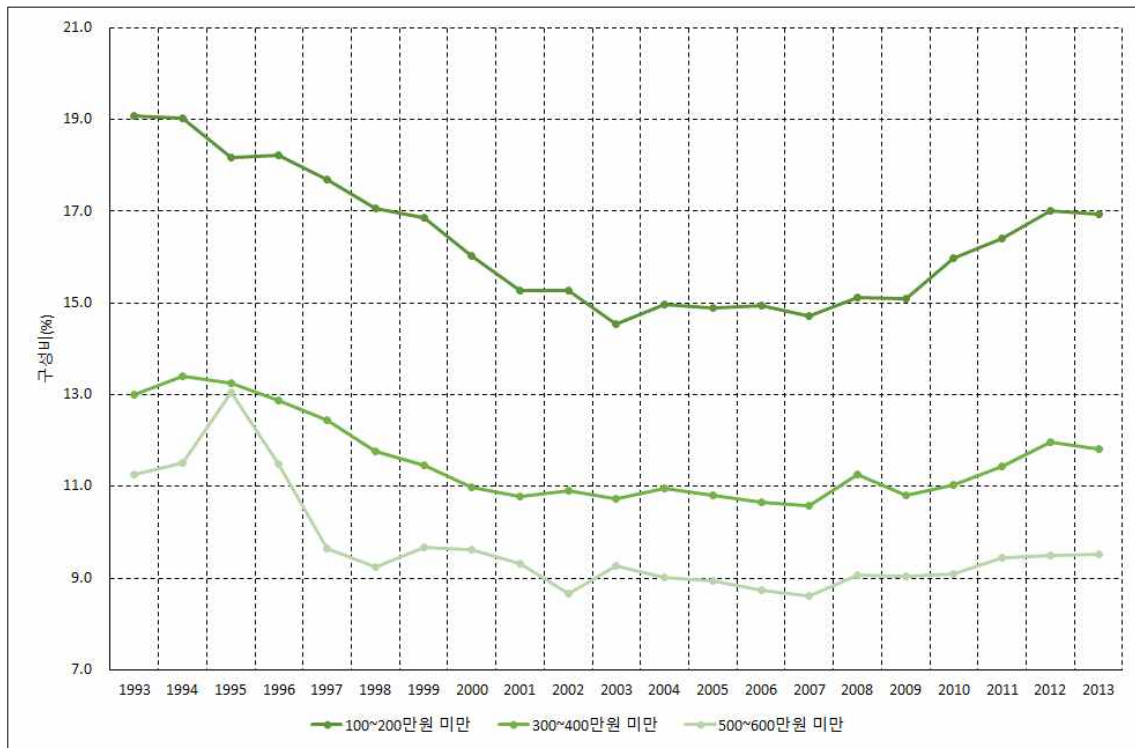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비중: 감소추세→최근 상승?, 저소득층>고소득층

식료품·비주류음료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소비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상승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증가세가 비교적 크다.

앵겔지수는 식료품의 지출비중인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세부항목의 추세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최근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소비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징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림 2.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비중*



출처 : 가계동향조사(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중



주류·담배 소비비중: 증가추세→감소추세?(저소득층)

주류·담배의 소비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에 감소추세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음주문화 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경제적 요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주류·담배 소비비중*



출처 : 가계동향조사(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중



의류 · 신발 소비비중: 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의류 · 신발의 소비비중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1998년 경제위기 때에는 고소득층의 소비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류 · 신발 등 패션관련 소비가 경기상황과 큰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비중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관련된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4. 의류 · 신발 소비비중*



출처 : 가계동향조사(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중



주거·수도·광열 소비비중: 증가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주거·수도·광열의 소비비중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증가추세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경향이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 경제적 여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다른 소비항목의 감소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매우 높은 소비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주거·수도·광열 소비비중*



출처 : 가계동향조사(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중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소비비중: 감소추세, 최근 비중격차 감소?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의 소비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감소추세가 뚜렷하였으며, 최근에는 소득계층별 지출비중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인지는 세부항목의 지출경향과 다른 지출항목과의 연관관계 등을 자세히 분석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소비비중*



출처 : 가계동향조사(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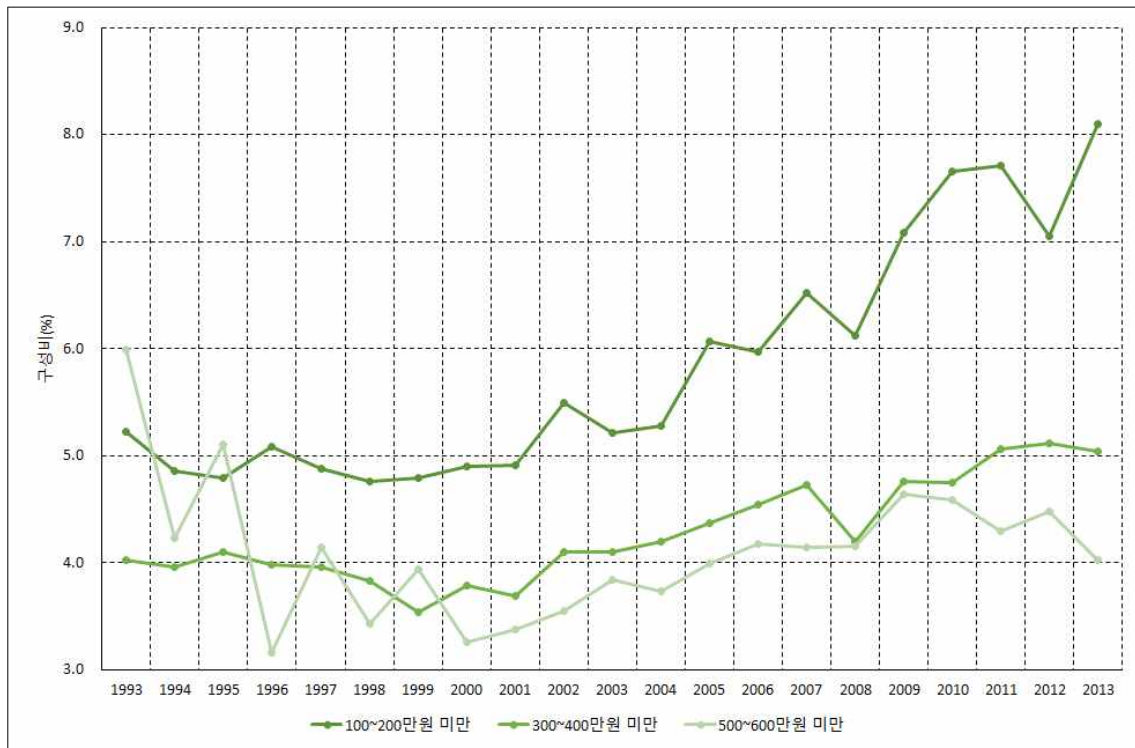


보건 소비비중: 증가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보건의 소비비중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수도·광열 항목의 지출증가와 함께 보건 항목의 지출증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가중의 주요 원인이 아닐지 세심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지출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지출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그림 7. 보건 소비비중*



출처 : 가계동향조사(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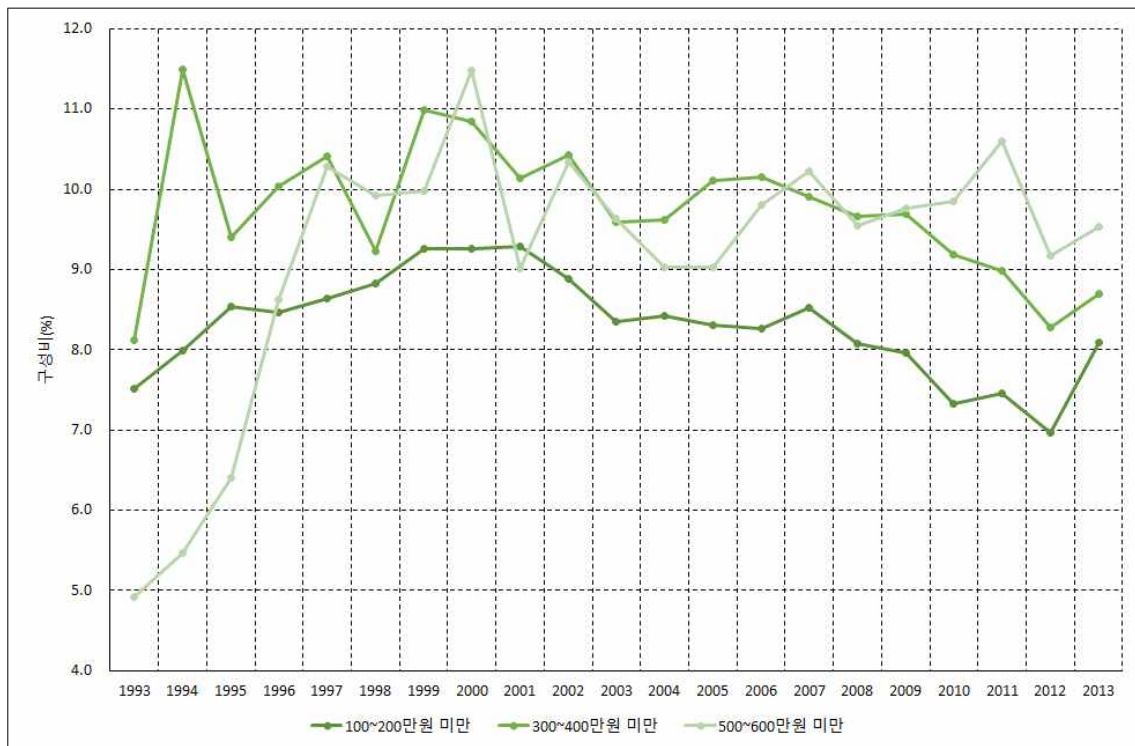


교통 소비비중: 저소득층 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교통의 소비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는 다소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중교통 요금 등의 상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9. 교통 소비비중*



출처 : 가계동향조사(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중



통신 소비비중: 증가추세→저소득층 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통신의 소비비중을 살펴보면 2004년 무렵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저소득층의 경우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경우에는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음에 따라 통신비를 크게 늘리는 스마트폰 등의 최신 열풍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비중의 지출을 하고 있다.

그림 10. 통신 소비비중*



자료 : 가계동향조사(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중



오락·문화 소비비중: 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오락·문화의 소비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낮은 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 항목의 경우 여가생활과 관련이 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가중됨에 따라 관련 지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11. 오락·문화 소비비중*



출처 : 가계동향조사(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중



교육 소비비중: 최근 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교육의 소비비중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2007년 무렵까지는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후에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중간계층과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에 감소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에 따른 것이라면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기회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항구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그림 12. 교육 소비비중*



출처 : 가계동향조사(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중



음식·숙박 소비비중: 증가추세→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음식·숙박의 소비비중을 살펴보면 2004년 무렵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해 저가의 음식 위주로 소비하거나 외식 등의 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3. 음식·숙박 소비비중*



출처 : 가계동향조사(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중



기타상품·서비스 소비비중: 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기타상품·서비스의 소비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1년 무렵부터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고소득층의 경우 1990년 후반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이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된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중의 지출을 하고 있다.

그림 14. 기타상품·서비스 소비비중*



출처 : 가계동향조사(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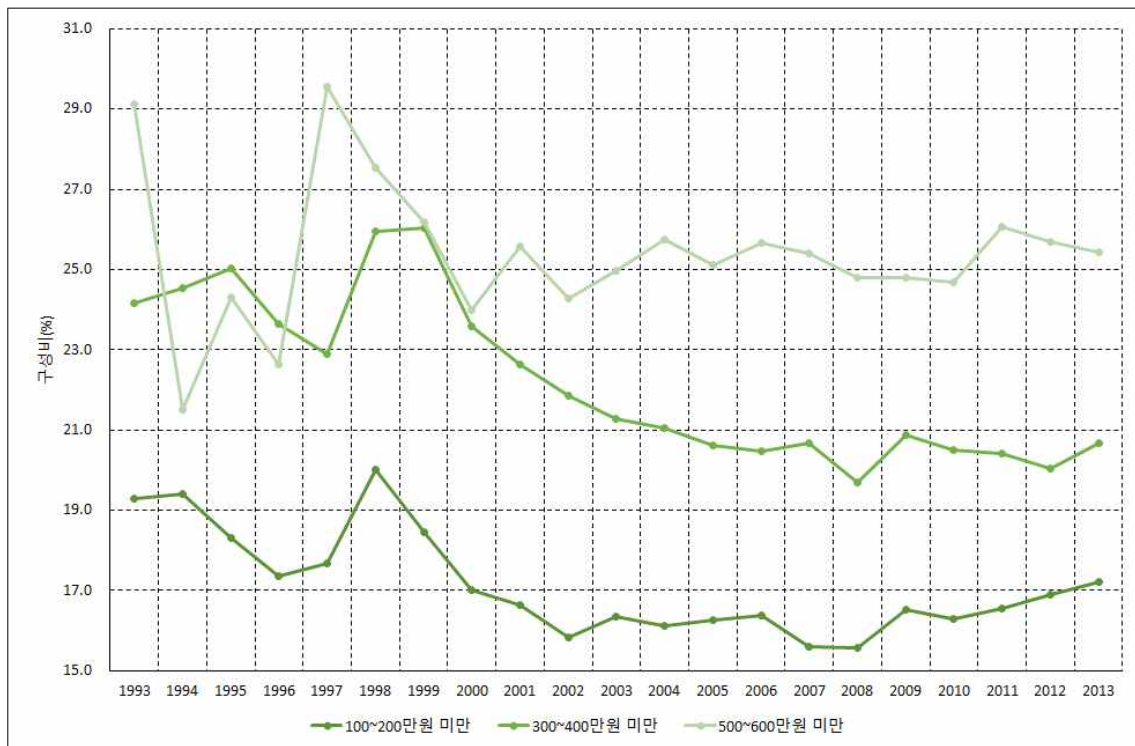


비소비지출 비중: 감소추세→최근 상승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비소비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저소득계층의 경우 감소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간계층의 경우에는 1999년 무렵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의 경우 1990년 후반 경제위기 이전까지 비교적 큰 폭의 기복이 있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다.

그림 15. 비소비지출 비중*



출처 : 가계동향조사(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중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요약 및 분석과제

소비항목별 지출비중 변화추이와 소득계층별 차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러한 분석은 통계자료의 기본적 열개만 나타낸 것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지출항목 사이의 상관관계와 세부항목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필수재(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항목)의 특성을 지니는 지출항목이 무엇이고, 어떤 소비항목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지, 소득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소비항목은 무엇인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표 1. 항목별 지출비중 요약

	요약
식료품·비주류음료	감소추세→최근 상승, 저소득층<고소득층
주류·담배	증가추세→감소추세?(저소득층), 저소득층<고소득층
의류·신발	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주거·수도·광열	증가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감소추세, 최근 비중격차 감소
보건	증가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교통	저소득층 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통신	증가추세→저소득층 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오락·문화	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교육	최근 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음식·숙박	증가추세→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기타 상품·서비스	감소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비소비지출	감소추세→최근 상승추세, 저소득층<고소득층

출처 : 새사연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6월 5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